

무주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탄력

군, 전북도 주관 청년소통 공간 '청년마루' 조성사업 공모 선정

무주군이 전라북도가 주관한 청년소통 공간 '청년마루'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5,000만원의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

'청년마루'는 지역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시·군)가 청년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소통공간을 마련·운영하는 것으로, 무주군은 ▲프로그램의 적성성과 ▲공간 접근성, ▲청년 참여 및 지역 거버넌스 활용도 등을 평가한 심사에서 고른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관내 청년 단체들과의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무주지역 특성에 맞는 청년 프로그램을 기획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외에도 ▲청년 소통공간을 마련·제공한다는 점, ▲청년 정책 발굴 포럼을 개최하는 등의 사업계획을 프로그램에 포함시켜 호평을 받았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무주군 청년들과의 소통과 문화, 복지, 교육 향우가 자 청년정책 발굴·추진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큰 기대를 하고 있다"며 "청년이 곧 무주를 이끌고 나갈 동력이라는 생각으로 청년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소통을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무주 청년마루'는 관내 청년들이 정보 공유와 상호 교류를 위해 회의와 모임, 여가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9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시설 및 프로그램('무주청년, 무주와 통하다' 이하 무주와 통하다) 운영에 총 사업비 1억5,000만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무주와 통하다'는 소통, 문화, 복지, 교육 등 4가지 테마로 진행(~12월)한다.

'소통(4회)'을 통해서는 무주청년들의 수요 및 의견을 반영한 초청 강연을, '문화(1회)'에서는 청년들이 원하는 문화공연이나 행사를 개최한다. '복지'를 테마로 해서는 동아리 지원과 기자재 대여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자격증 취득 및 발급, 교재비용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청년포럼'을 개최해 청년이 만드는 청년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무주군 문화누리 박용수 대표는 "또래나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역과 개인의 발전을 고민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는 소식 자체가 너무 반갑다"며 "청년마루가 청년들이 서로 믿고 의지하는 창구가 돼서 도시로의 청년 유출을 막고 무주로의 청년 유입과 정착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만 18세~49세까지의 무주군 지역 청년인구는 지난해 12월 말 현재 6,756명(2016년 대비 1,214명 감소)으로 무주군은 '청년기본조례'를 제정(2020)해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 보장과 행정적 지원체계 마련을 돕고 있다.

향후에는 청년기본 계획을 수립해 청년 인구문제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무주군에서는 현재 무주군청년정책협의체를 비롯한 4H, 청년회의 등 청년모임과 단체가 활동 중으로 무주군은 '청년마루'가 운영에 들어가는 9월부터는 온라인 창구개설과 청년 공감서포터즈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등 지역 청년들 간 네트워크 체계 강화에 더욱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춘성 진안군수는 국가예산확보와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팔 걷고 나섰다.(사진은 농림부 기획조정실 방문 모습)

예산 확보·현안 해결 총력

전춘성 진안군수, 농림축산식품부·기재부 방문 필요성 설명

전춘성 진안군수는 국가예산확보와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팔 걷고 나섰다.

전춘성 군수는 지난 2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기재부를 방문해 ▲진안군 농촌협약 추진 ▲K-홍삼 혁신 플랫폼 구축 ▲무진장축협 정관개정 의결취소청구 등 현안사업 건의와 국가예산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적극 설명했다.

진안군 농촌협약 추진사업은 농촌공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365생활권(30분 내 기초생활서비스, 60분 내 복합서비스, 5분 내 응급서비스) 구축)에 필요한 사업간 연계성을 통해, 농촌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이 수립한 지역 발전 방향에 맞게 중앙과 지방이 함께 집중투자하여 공동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를 위해 군에서는 지난 3월부터 농촌협약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KRC전북 농어촌 발전포럼을 3회 개최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또한 K-홍삼 혁신 플랫폼 구축사업은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세계적인 대표 면역력 강화식품으로 부각된 진안홍삼에 대해, 국가 차원의 공공 k-홍삼 전시·홍보 기반구축으로 글로벌 마케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유일의 진안홍삼연구소, 홍삼·한방특구 기반을 활용한 종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세계적인 홍삼 메카 육성을 통한 '대표 지역균형 뉴딜정책' 구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다.

전춘성 군수는 "진안군 농촌협약과 K-홍삼 혁신 플랫폼 구축사업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군에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며, 무진장축협 정관개정 의결도 지역 조합원간의 분열을 조정하고 지역 간 갈등을 초래하므로 미땅히 취소돼야 한다"며 "이번에 건의한 사업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현장에서 발로 뛰며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군, 봄 임산물 이상저온 피해 입자 정밀조사

장수군이 불철 이상저온 현상에 따른 임산물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오는 5월 8일까지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 입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펼친다.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저온피해를 입은 농업인이 농지 소재 읍·면에 피해신고서를 제출하면 입가와 이장, 담당 공무원이 현장 조사를 시행하고 피해면적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한다.

군은 복구계획에 따라 피해입자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해 관내 임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군은 향후 이상기후, 태풍 등 잦은 자연 재난이 예상되는 만큼 임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지도를 지속해서 강화하고 임산물 재해 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문민섭 산림과장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어려움 속에서 저온 피해까지 겹쳐 안타깝다"며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피해 조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 전통마을숲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현장조사

농림축산식품부 자문위원 실시... 5월 말 최종 선정여부 결정

진안군은 지난해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 신청한 진안군 전통마을숲 72개소에 대한 현장조사가 지난 26일 마을숲을 대표하여 정천 하초마을에서 시행됐다.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신청은 1차 발표 및 현장조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난해 1차 발표 후 바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이번이 시행됐다.

이번 현장조사는 마을숲이 주변 농

경지와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지니는지에 대한 현황 및 관리실태 적합성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현장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농축산식품부 및 농어촌공사와 자문위원의 회의를 거쳐 5월 말경 최종 선정여부가 가려진다.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 목적은 유산의 보전가치가 높은 대표구역을 유산별로 지정, 집중관리를 통하여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선정되면 3년간 총 14억

9,000만원(국비 9억9,000만원)이 지원된다.

전춘성 군수는 "진안군 전통마을숲이 국가중요농업유산에 지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선정된다면 과거·현재·미래를 아우르는 전통마을숲으로 가꿔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 15개 지정개소 중 전북에는 부안 유유봉 양잠, 완주 생강전통농업시스템 2개소가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 안성면, 주민들과 특색 있는 꽃길 조성사업 실시

무주군 안성면은 27일 주민들이 함께 하는 특색 있는 꽃길 조성사업(이하 꽃길 조성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꽃길 조성사업은 안성면을 방문하는 내방객에게 활기차고 화사한 지역 이미지를 선사하고 코로나로 지친 주민들에게 활력을 심어준다는 취지에서

진행된 것으로, 주민자치위원회와 부녀회, 생활개선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율방범대, 한국여성농업인회, 여자농소방대, 발전장학재단 등 8개 지역사회단체 회원 등 100여 명이 함께했다.

주민들은 덕유산에서 안성면 비둘목 삼거리까지 2km 구간에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기부한 국화(3만주)와 발전장학재단에서 기부한 사파니아(1,000주)를 심었으며 주민들의 험터이자 운동공간인 안성면 생활체육공원에도 꽃잔디(2만1,000포트)를 심었다. 꽃잔디 식재 규모가 1,500㎡에 달해 꽃정원으로 탈바꿈한 생활체육공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전춘성 진안군수, 미안마 민주주의 응원 챌린지 동참

전춘성 진안군수가 27일 '미안마 민주주의 회복 응원 챌린지'에 동참했다.

'미안마 민주주의 회복 응원 챌린지'는 미안마 군부의 폭력진압을 규탄하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모두가 연대하자는 의미로 펼쳐지고 있으며 전 군수는 문정우 금산군수의 지목을 받아 동참하게 됐다.

챌린지의 슬로건인 'Everything Will Be Ok!(다 잘 될 거야!)'는 미안마 쿠데타 시위에 참여했다가 군부의 총탄에 사망한 19세 소녀의 옷에 새겨진 글귀에서 비롯됐으며, 세순가락 경례는 자유, 선거, 민주주의를 의미한다.

전춘성 군수는 "미안마 군부의 쿠데타와 국민들에 대한 폭압에 맞서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는 미안마 국민들을 지지하며 허투루 미안마에 봄이 오기를 기원한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며 다음 동참자로 장영수 장수군수를 지목했다.

또한 이에 발맞춰 진안군은 전북 도청에서 가장 먼저 참여하고 확산시킨 '미안마 사랑 티셔츠 구매 운동(1천원 1티셔츠 구매 운동)'에도 전 공직자의 참여를 독려했고 나서며 미안마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함께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지진옥외 대피장소 관리점검

장수군은 이날 말일까지 각 읍·면에 지정된 지진옥외대피장소 24개소에 대한 관리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장수군은 국내에서 크고 작은 지진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 철저한 대비를 통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지진옥외대피소 안내 및 방화 표지판 시인성 확보, 노후화 상태, 대피장소 관리자 지정 등 8개의 항목으로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 작년 하반기 지진옥외대피장소가 명시된 대피장소 지도 리플릿을 제작해 매월 안전점검의 날에 배부하고, 자율방재단원을 대피안내요원으로 지정해 군민이 스스로 지진에 대한 안전의식을 고취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장수=고판호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